# 수요량과 공급량 곡선

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가격에 따른 최대 거래 가능 수를 곡선으로 표현한 것 이다. 이 곡선에서 주의해야할 점은, 이것은 함수 그래프라기 보다는, 오직 특정 가격에 대한 최대 거래 가능량이어 붙인 표를 평면위 점으로 옮겨 이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. 거시적으로 바라보아, 어느 가격에 거래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상품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격에 대한 거래량을 적어놓은 가격에 대해서만 참조하는 표의 역할을 가진다.

## 균형거래점과 수요와 공급 곡선의 이동

이 그래프는 내포하는 뜻도, 의도도 수요, 공급 곡선과 다르다. 곡선이 이동했다는 사실은, 그 곡선 어느 점에서의 가격에 대한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것 이다.

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겹칠때 거래는 체결된다. 그런데, 곡선의 이동으로 새로운 체결점이 생성된다. 이것은 단순히 거래되던 점이 그곳으로 곡선 이동한 것이 아니라, 균형 거래량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새로운 점이 생성되는 연유로 초과수요 및 초과공급 효과로 인해 새로운 체결점(=새 균형거래점)을 형성하는 것 이다.

##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의 이유

교과서에서는 설명할때 소비 주체의 욕구에 바탕하여, 저렴할때 구입하고 비쌀때 덜 구입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, 수요 곡선은 이것을 보여주긴 하지만,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린 것은 아니기에 이것은 아니다. 그럼 어떻게 하는가, 상수로 잡아야 할 것이 있다. 소비자의 자본이다. 자본을 바탕으로 낮은 가격으로는 많이 살 수 있고, 높은 가격으로는 적게 살 수 밖에 없다. 수요 곡선의 qty = A/price 의 A는 자본이기에 수요 곡선은 양의 반비례 곡선이다.

## 가격의 변화에 따른 공급량 변화의 이유

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접근해보면, 기존 체결량 100개, 체결가격이 10$로 순조로이 체결되었을때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곡선에 대입하여 체결량이 증가한다.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공급량의 정의와 원가라는 상수에 있다. 원가가 5$며, 10$에 100개 판매하면 500$의 영업이익(생산 단가, 그 외, 다 뺀 금액)을 얻는다. 20$, 100개면 1500$다. 거래되는 가격이 먼저 오른다는 사실 아래, 이익을 더 챙길 수 있게 된다. 그럼 영업이익 증가는 ‘같은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의 개수, 즉, 상품을 만들 자본의 증가’로 직결된다. 따라서 공급량은 늘어난다.

가격 하락에 따른 공급량 감소도 마찬가지다. 가격하락에 의해 자본금이 줄어들어 생산 가능한 상품의 개수가 줄어든다.